

호랑이 1위 독주 믿음주는 '불펜'

김윤동·임창용 호투... 홍건희·한승혁 부재는 아쉬워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kt·SK와 리턴매치

‘호랑이 군단’의 복잡한 불펜 고민이 1위 독주 행방을 바꾼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주 고척과 사직으로 이어진 원정 6연전길에서 5승1패를 수확하고 왔다. 23승9패로 0.719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2위 NC 다이노스를 2.5 게임 차 밖으로 밀어두었다.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KIA는 이번 주 안방에서 kt 위즈를 상대한 뒤 주말에는 문학으로 건너가 SK 와이번스를 만난다.

앞선 만남과는 다른 자리에 위치해 있는 두 팀이다.

KIA는 지난 4월18일 수원에서 조반 돌풍의 주역 kt 위즈와 시즌 첫 만남을 가졌다. 임기영의 완봉승과 이명기의 그라운드 홈런으로 시작된 시리즈에서 KIA는 2승1패를 거두며 1위를 지켰다. 이후 kt는 허락세를 타며 공동 8위 자리에서 KIA와 리턴매치를 벌여줬다.

홈 개막전 상대였던 SK는 한방을 앞세워 초반 연패를 끊고 4위에 위치했다. SK는 우천으로 취소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두 경기에서 모두 지면서 개막 5연패를 안고 광주를 떠났다. 그리고 KIA와의 4대4 감쪽 트레이드 이후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 7연승을 달리기도 했다.

‘리턴 매치’로 전개될 이번 주, 역시 눈길이 쏠리는 곳은 불펜이다. 개막 후 이어지고 있는 KIA의 불펜 고민은 호재 속에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었다.

KIA의 지난주 승수 썩기의 중심에는 임창용과 김윤동이 있었다. 특히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은 불펜 싸움의 승리였다. 주중 경기를 쉬어간 임창용은 사직 3연전에 모두 출석해 1승 2이닝을 수확했다.

지난 5월 3-3로 맞선 9회말 1사에서 등판한 임창용은 1.2이닝 2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팀이 연장 10회 5-3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던 임창용은 이후 두 경기에서는 9회를 책임지며 세이브를 연달아 기록했다. 초반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던 임창용은 제구, 구위 모두 살아나면서 든든한 마무리로 돌아왔다.

김윤동도 불펜의 확실한 필승맨이었다. 지난 7일 김윤동은 3-3으로 맞선 7회부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32	23	0	9	0.719	0.0
2	NC	32	20	1	11	0.645	2.5
3	LG	32	20	0	12	0.625	3.0
4	SK	32	16	1	15	0.516	6.5
5	넥센	32	15	1	16	0.484	7.5
6	롯데	32	15	0	17	0.469	8.0
7	두산	32	14	1	17	0.452	8.5
8	한화	32	14	0	18	0.438	9.0
8	kt	32	14	0	18	0.438	9.0
10	삼성	32	6	2	24	0.200	16.0



김윤동



임창용

터 8회까지 2이닝을 피안타 없이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5-3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팀의 3연승과 함께 김윤동의 프로 데뷔 첫 승도 기록했다.

하지만 김윤동은 지난주 4경기에서 나와 7.1이닝을 소화하는 등 부담 많은 한 주를 보냈다. 김윤동은 선발로 나와 3이닝에 그쳤던 경기를 포함 올 시즌 14경기에서 벌써 22이닝을 던졌다.

뽀족한 불펜의 수를 찾지 못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계속되면서 필승조의 과부하가 걱정이다.

부진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홍건희와 한승혁의 부재가 아쉽다. 지난 시즌 들쭉날쭉한 공을 던져주었던 홍건희는 올 시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승혁도 시범경기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KIA 불펜의 힘이 떨어졌다. 불펜 정상화가 KIA 1위 독주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말에는 새 옷을 입은 선수들의 움직임에도 눈길이 쏠리게 된다. 4대4 트레이드의 핵심인 KIA 김민석·이명기와 SK 이흥규·노수광이 친정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한편 평균자책점, 다승 1위인 양현종은 9일 kt 정대현과 ‘좌완 맞대결’을 벌이며 7연승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멕시코 모자 어울리나요?”

8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최종일 결승에서 세계랭킹 3위 에리아 푸타누간(태국)을 1홀 차로 꺾고 우승한 김세영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오른쪽은 로레나 오초아. /연합뉴스

이글...버디... ‘매치 퀸’ 김세영

세계3위 푸타누간 1홀차 꺾고 오초아 매치플레이 우승

영양출신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총상금 120만 달러)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세영은 8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파72·6804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결승에서 세계랭킹 3위 에리아 푸타누간(태국)을 1홀 차로 꺾었다.

지난해 6월 마이어클래스 이후 11개월 만에 LPGA 우승컵을 든 김세영은 통산 6승째를 기록했다. 김세영은 LPGA 무대로 옮긴 2015년 3승, 지난해 2승을 거뒀다.

준결승에서 허미정을 꺾은 김세영은 결승전에서 초반에 푸타누간의 기선을 제압했다.

1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은 뒤 3홀 연속 푸타누간에 앞섰다. 특히 2번홀(파5)에서는 장기간 드라이버샷을 앞세워 이글을 낚았다. 푸타누간도 버디를 잡으면서 선전했지만, 김세영에게 이 홀을 한바

해야 했다.

기세가 오른 김세영은 3번홀(파3)에서 다시 버디를 잡으면서 파로 돌아온 푸타누간을 제쳤다.

이후 두 선수가 9번홀까지 파 행진을 이어가면서 김세영의 3홀 차 리드는 계속됐다.

10번홀(파4)에서 김세영이 보기를 범하면서 격차가 2홀 차로 줄어들었지만, 12번홀(파4)에서 김세영이 버디를 잡으면서 1홀 차로 추격해왔다. 18번홀(파4)의 승부에 따라선 연장전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세영과 푸타누간이 나란히 파로 돌아오면서 김세영의 승리가 확정됐다.

3-4위 전에서 허미정이 미셸 위(미국)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3위에 올랐다. 허미정은 1번홀부터 버디 행진을 벌인 미셸 위에게 5홀 차까지 리드를 당했지만, 후반부터 힘을 내기 시작했다.

11번홀(파5)과 12번홀(파4)에서 연속으로 버디를 잡은 허미정은 미셸 위가 보기를 범한 13번홀(파4)을 파로 막으면서 2홀 차로 격차를 좁혔다. 미셸 위가 다시 보기를 범한 15번홀(파4)과 17번홀(파5)에서도 허미정은 깨끗하게 파로 돌아오면서 승부의 추를 원점으로 돌렸다.

결국, 승부는 연장 네 번째 홀에서 걸렸다. 미셸 위가 30cm짜리 짧은 파 퍼팅에 실패하면서 허미정이 3위 자리를 확정했다. 2012년 이후 5년 만에 LPGA 투어에서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64명이 출전해 4개 그룹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2017 LPGA 한국(계) 우승자

※ 우승남파 한국시간 기준

- 장하나 (한국) 호주여자오픈 (2.19)
- 양희영 (한국) 혼다 LPGA 타이랜드 (2.26)
- 박인비 (한국) HSBC 위민스 챔피언스 (3.5)
- 이미림 (한국) KIA 클래식 (3.27)
- 유소연 (한국) ANA 인스퍼레이션 (4.3)
- 노무라 하루 (일본) 텍사스 슛아웃 (5.1)
- 김세영 (한국)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5.8)

런던 세계선수권을 향해

광주시청 김국영·정혜림 전국육상선수권 기준기록 넘는다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27·광주시청)이 첫 출전한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올해 기본종은 레이스에 들어갔다.

김국영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46회 전국종합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 결승에서 10초47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올 8월 열리는 런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기준기록(10초12)에는 미치지 못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기준기록을 넘어설기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국영은 동료들과 짝을 이뤄 출전한 400·1600m 계주에서는 폭풍 질주로 시상대 맨 위에 오르며 기록 경신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는 400m 계주에서는 송만석·최민석·임희남과 호흡을 맞췄고 1600m 계주에서는 이준·최민석·장지용과 팀을 이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국영은 8월 런던 대회까지 남은 5개 대회를 통해 기량을 끌어올려 기준기록을 통과하겠다는 각오다.

김국영은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22일)를 비롯, 남은 대회에서 기록 경신에 힘



김국영



정혜림

써 올 해 열리는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 100m 허들의 간판으로 꼽히는 정혜림(31·광주시청)도 이번 대회에서 13초35로 1위로 결승라인을 통과했다. 정혜림도 여세를 몰아 올 해 한국신기록 수립(13초8)과 런던 세계육상선수권(기준기록 12초89) 참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기세다.

정혜림은 곧바로 일본 오사카로 이동, 일본 대회에서 기록 경신에 주력한다.

한편, 모일환(18·광주체고 3년)은 고등부 400m 결승에서 대회신기록(46초22)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유망주임을 재확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박태환 6년만의 세계선수권 출전 성큼

아레나 프로 스윙 시리즈 3관왕

박태환(28·인천시청)이 올해 첫 실전 무대에서 3관왕에 오르며 6년 만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관문도 가볍게 넘어섰다.

박태환은 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매켈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7 아레나 프로 스윙 시리즈 대회 마지막날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5분06초3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물살을 갈라 금메달을 차지했다.

201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오픈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때 작성한 자신의 최고기록이자 한국 기록(14분47초3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우승을 차지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첫 50m를 26초95로 가장 먼저 던 뒤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2위 펠릭스 어보에크(미국·15분16초63)에 10초25 앞서 마지막 터치패드를 찍었다.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15분07초86)보다도 빨랐다. 레이스를 함께 펼쳐 나갈 적수가 없어 기록을 더 높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한 수 위



박태환

실력을 보여줬다.

올해 세계랭킹에서는 16위에 해당한다. 세계랭킹 1위는 지난해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레고리오 팔트르니에리의 14분37초08이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자유형 400m와 200m에 이어 1,500m 우승까지 차지하며 대회 3관왕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자유형 1,500m에서도 오는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A기준기록(15분12초79)을 무난히 통과했다. 결승은 뛰지 않은 자유형 100m까지 포함해 이번 대회에 출전한 네 종목에서 모두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FINA A기준기록을 넘어섰다.

자유형 1,500m를 끝으로 박태환은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자격 획득과 훈련 성과 점검을 겸해 올해 처음 나선 공식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박태환이 실전을 치른 것은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3회 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5개월 만이었다. 길이 25m의 쇼트코스보다 50m의 롱코스 대회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아시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이다.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이후 6년 만의 롱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박태환은 지난 2월 중순 호주 시드니로 건너가 담금질해왔다. 박태환은 다시 호주로 넘어가 훈련을 이어간다. 이후 다음 달 중순 잠시 귀국했다가 유럽으로 이동, 시차 적응을 겸한 마무리 훈련을 하고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FIFA 평의회 위원 선출



정몽규(54·사진) 대한축구협회장이 재수 끝에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에 임명됐다.

정몽규 회장은 8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에서 2년 임기의 FIFA 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정 회장은 남자 3명을 뽑는 아시아 몫의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출마해 투표 없이 AFC 회원국 대표들의 박수를 받으면 평의회 위원이 됐다. 원래 4명이 임 후보였지만 비리에 휘말린 쿠웨이트의 셰이크 아마드 알 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이 출마를 철회해 무투표 당선됐다.

그는 2015년 FIFA 집행위원 선거 때 낙선했지만, 재수 끝에 꿈을 이뤘다. 한국인의 FIFA 입성은 지난 정몽준 전 축구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6년 만이다. 또 정 회장은 동아시아 몫으로 배당된 4년 임기의 AFC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겹경사도 누렸다. /연합뉴스